

# “시진핑 물러나라”...코로나 봉쇄 반대 中민심 폭발

상하이서 수천명 대규모 시위  
베이징 주민들 방역 집단 항의  
우한·청두·난징·광저우도 시위  
베이징대 등 우루무치 희생자 추모



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봉쇄가 진행 중이었던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자 이를 추모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연합뉴스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엄격한 통제 사회 곳곳에서 인내심의 독이 무너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경찰의 체포 작전에도 새로운 시위가 속속 이어졌다. 27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상하이 우루무치중류에서는 수백~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 나간 우루무치 참사에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류는 신장 우루무치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로이터는 전날 밤 우루무치중류에서 시작된 항의 시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SNS에 올라온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우루무치의 봉쇄를 해제하라, 신장의 봉쇄를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또 어느 순간 대규모 인원이 "중국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루무치를 해방하라"라는 구호도 외쳤다고 덧붙였다.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아파트의 봉

쇄를 위한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퍼져나갔다. 화재 다음날인 25일에는 성난 우루무치 주민들이 현지 정부청사 앞에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고 추위 속에서 대규모 가두 행진을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봉쇄 상태다. 한 위구르족 주민은 AP 통신에 "시위 영상 속 주민은 대부분 한족이었다"며 "한족들은 자신들이 봉쇄에 대해 항의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 위구르족들이 그런 일을 하면 감옥에 가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 위구르족은 분노에도 거리로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루무치 시 당국은 25일 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지역이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이어서 당시 아파트는 봉쇄되지 않았고,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 탓에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성난 민심을 달래지는 못했다. 베이징에서도 전날 주민들이 방역 조치에 집단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약 1시간 동안 봉쇄 해제

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결국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단지 봉쇄를 취소했다. 이밖에 우한, 청두, 난징, 광저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날 밤 시위가 벌어진 현장을 담았다고 밝힌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특히 2020년초 코로나19가 처음 대규모로 확산한 우한에서도 27일 수백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중국 SNS에 확산했다. CNN은 "25일 우루무치를 휩쓴 시위에 이어 다른 몇몇 도시에서도 봉쇄 지역 주민들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도 우루무치 희생자 추모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베이징대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곳이라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고, 칭화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다. AP는 "SNS에 올라온 영단에 따르면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 베이징대 학생은 CNN에 "오늘 자정께 베이징대에서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라고 말하라', '코로나 검사에 노, 음식에 예스'라고 말하라"는 구호가 붙은 페인트로 칠해진 벽 앞에 모였다"며 "내가 오전 1시께 현장에 갔더니 보안 요원들이 상의로 해당 시위 구호를 가려놓았다"고 말했다. AFP는 이날 칭화대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목격자와 소셜미디어 영상을 인용해 보도했다. 누리꾼들도 백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일부는 우루무치 중류의 거리 표지판 등 검열을 피하면서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연합뉴스

## 트럼프 백인 우월론자 회동 공화당내서도 비난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론자와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국가나 당에 모범이 돼야 할 리더가 스스로 인정한 인종주의자 또는 반유대주의자와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미국의 최근 유대인 혐오 발언으로 비판받는 합참 가수 '에' (카네이 웨스트)와 백인 우월론자 닉 푸엔테스와 만찬을 함께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그날 만찬은 예와 예정된 것이었고 푸엔테스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만찬 과정에서 트럼프는 "나는 푸엔테스가 정말 좋다. 그는 나를 사로잡았다"는 전언이 나온 상태다. 예는 최근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각종 광고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푸엔테스는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백인우월주의자 유혈 폭력집회에 참석한 뒤 극우세력 사이에서 명성을 얻은 인물로,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도 이날 NBC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와 식사를 할지 더 나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코머 의원은 "나는 푸엔테스는 물론 예와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만 지방선거 집권 민진당 참패

21개 현·시 중 13곳 국민당 승리  
차이잉원 총통 정권 재창출 타격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평가 무대 무너져 26일 대만 지방선거가 집권 민진당 참패로 끝났다. 제 1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민진당과 집권 2기 후반에 접어든 차이 총통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차이 총통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여당 주석직에서 물러나는 등 민진당으로선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직면했다.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단체장을 뽑은 21개 현·시 가운데 국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13곳, 민진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5곳이었다. 민중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이겼다. 국민당 후보는 6개 직할시 중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등 4곳에서 승리했다. 또 그 외 지역 중 지룽시, 신주현, 장화현, 난터

우현, 원린현, 이란현, 화롄현, 타이둥현, 령장현 등에서 국민당 후보가 이겼다. 반면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은 직할시 중 타이난과 가오슝, 그리고 지역 중 타이현, 평후현, 핑둥현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대만 연합보는 "민진당이 1986년 9월 창당 이래로 지방선거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다"고 보도했다. 민중당은 신주시장을 차지했고, 무소속 후보가 마오리현·진먼현 2곳에서 이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 민진당의 참패로 끝났던 2018년 11월 열린 직전 지방선거와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당은 22개 현·시장 자리 중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을 차지했고 민진당은 6곳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큰 정점 없이 인물 중심으로 치러진 측면은 있지만, 차이 총통이 선거전 도중 중국의 위협과 대만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차이 총통의 강력한 '친미 반중' 노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 군 주둔지로 떠나는 러시아 징집병들



러시아 징집병들이 27일(현지시간) 중남부 옴스크의 한 열차역에서 러시아군 주둔지로 출발하는 열차에 오르기 전 승강장을 따라 걷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서 유럽 경제적 이익 지켜내야”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주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이날 프랑스 3 TV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관세와 수입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세계화가 유럽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도 예외는 유럽산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유럽도 경제적 이익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르메르 장관은 다음 주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르메르 장관은 정부가 과거에 건설된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